

한국비구니스님 주제 첫 국제학술대회 연다

내년 5월 20~22일 안양 한마음선원서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삶과 수행전통에 세계 불교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한국 비구니의 삶과 수행에 대한 역사적 조명'을 주제로 한 최초의 국제 학술대회가 내년 5월 20~22일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한국 비구니 승단의 수행 전통을 조명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될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지난해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아시아학회 연례회의(AAS)에 '한국 비구니에 대한 연구' 분과가 처음 열린 데서 출발했다. 이 대회에 참석했던 로버트 버스웰 교수(미 UCLA)와 바바라 루시 콜롬비아대학 중세일본연구소장, 미국 조지아 대학 이향순 교수 등이 의무합체 국제 학술대회를 제안했고, 최근 한마음선원이 주최를 맡아 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김영태(동국대 명예교수) 심재룡(서울대) 최병현(서울대) 교수 등 국내 학자 10여명과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등에서 한국 불교를 연구하는 해외 학자 12명 등 20~25명의 참석을 주최 측은 계획하고 있다. 한국 비구니 승단을 독립된 주제로 삼아 대규모 국제학술대회

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이처럼 한국 비구니 승단에 세계 불교학계의 관심이 모이는 것은 양성평등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때 안겨 때마다 800여 명의 비구니 스님이 안거에 들 정도로 한국 비구니 승단이 수행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7월 초순까지 발표자와 논문 주제 확정돼야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한국 비구니 승단의 역사와 조직, 수행전통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연구,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가르침과 수행에 대한 연구 등 3~4개의 그룹별 주제 발표가 있을 전망이다.

대회 준비를 돕고 있는 동국대 교수 해원 스님(선학과)은 "한국 비구니에 대한 구미 학자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연구 성과와 자료 축적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한국 비구니의 역사와 수행전통에 대한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도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한·미·영 등 국내외 학자 20~25명 참가

비구니 승단 역사·조직·수행전통 등 조명

'조선불교통사'는 불교백과사전

한·중·일 방대한 자료 인용... 내년 7월 완역 碑銘 번역할때 너무 어려워 저절로 '悲鳴' 나와

불교문화연구원 '조선불교통사' 연구팀

<조선불교통사>가 완역된다. 1918년 이능화(1868-1943)가 펴낸 <조선불교통사>는 2천302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에 우리나라 불교사 관련 자료를 총정리한 역사. 3권2책으로 된 이 책은 자료적 가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역이 없었다.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곳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서윤길)이다.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을 연구 책임자로 효탄스님(고려불교), 김진무(중국불교), 한상길(조선불교), 김지은(유식학), 류화송(문자성운학) 등 5명의 박사과 4명의 박사급 연구보조원이 지난해 8월부터 원문

번역과 역주 작업을 해오고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내년 7월까지 진행될 계획. 중권까지의 번역과 상권 일부의 역주를 마치고 5월 29일에는 중간보고를 겸한 학술대회를 가지기도 했다.

번역팀장을 맡고 있는 김진무 박사는 "<조선불교통사>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역사서는 물론 고승전(高僧傳)과 전등록(傳燈錄), 문집, 각종 금석문, 사찰의 사적기 등 방대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번역과 역주를 할 수 없는 책"이라며 "한국불교와 관련된 종합 백과사전이라 할만하다"고 말했다.

단순 번역이 아니라 인용문의 출처를 조목조목 찾아 밝히다 보니 2년도 긴 시간이 아니다. 특히 금석문 중에서도 한시 형태로 된 비명(碑銘)은 생략과 함축이 많아 "비명(碑銘)을 만나면 진짜 비명 나온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이 덕분에 얻은 성과는 만만치 않다. 종합자료집으로 불릴 만큼 방대한 자료가 인용되다 보니 이 목록을 정리하는 것만도 한국 불교 연구의 기초 자료 확보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한상길 연구원은 "상권과 중권에서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서술 분량이 32%를 차지하고 인용된 전거만 8종 130건에 이른다"며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미진했던 조선시대 불교 연구에도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책임자를 맡고 있는 법산 스님은 "<조선불교통사>는 중국, 일본에서도 한국 불교 연구의 필수 지침서로 평가하는 자료"라며 "불교사를 넘어 한국 불교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석굴사원에 대한 열망

인도의 기후는 매우 더운데다 습기가 많지 않다. 이러한 기후 조건을 견디려면 산중턱에 석굴을 뚫어야 시원한 예배장소가 된다. 인도의 석굴사원은 인도만의 독특한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산물이다. 그러나 석굴사원은 인도에 머물지 않고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퍼져나갔다. 석굴사원은 더 이상 기후의 산물이 아니라 문화의 산물이 된 것이다.

여의치 못하자 네모난 돌기둥에 불상을 새기되 그 위는 목조건물을 씌워 석굴사원의 모습을 갖추었다. 예산 사방불, 경주 굴불사지 사방불상, 경주남산 칠불암 등이 그러한 예이다. 석굴사원의 형식을 따랐지만, 반은 석굴사원이고 반은 목조건축인 것이다. 석굴암도 마찬가지이다. 석굴을 뚫을만 한 자연조건이 되지 않자 굴을 뚫는 대신 산



<예산화전리사면석불(보물 제704호). 석굴사원의 변형으로 탑주 부분만 돌로 되어 있고 그 주위는 목조건물로 씌웠다.

중턱에 돌로 굴을 쌓아 올려 석굴사원을 조성하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더군다나 석굴암은 인공적으로 쌓은 석굴이기에 신라의 정밀한 기하학으로 구성되어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창출할 수 있었다. 이미 일제강점기 때 오네다미요지(米田美代治)가 그 기하학적 원리를 발견하였고, 강우방 교수의 문명대 교수가 그 기하학적 원리를 불교 교리와 연계시켜 해석하려는 시도를 행한 바 있다. 그리하여 인도에서 시작된 석굴사원의

석주에 불상-목조건물 덮어 석굴모습 갖춰 기하학 원용 산중턱에 돌 쌓아 석굴암 조성

대표적인 예가 네모난 돌기둥에 각 면마다 불상을 새긴 사방불이다.

원래 인도에서는 차이티아(chaitiya)라 하여 말발굽 모양의 길쭉한 석굴 끝에 반구형의 스투파를 설치하였다. 시대가 내려오면서 석굴 안의 스투파는 바깥에 불상이 새겨졌고 급기야 엘로라 석굴(Elora Cave)에서는 네모난 돌기둥이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의 석굴사원에서는 바로 엘로라식으로 석굴 가운데 탑주(塔柱)라 하여 천장까지 닿는 네모난 기둥을 세우고 동서남북의 면에 불상을 안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탑주 형식은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중국처럼 석굴을 뚫는 일이

형식은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쳐 한반도의 끝자락인 신라에서 마감되는 석굴사원의 벨트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석굴사원에 대한 열망은 인도와 다른 자연환경일지라도 우리에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평 대신 닢이라고 석굴이 불가능하지 석조와 목조를 혼합하여 사방불 중심의 급경을 만들었고, 치밀한 기하학적 원리로 석굴암을 세계에서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운 석굴사원으로 만들었다. 사방불과 석굴암. 이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석굴사원에 대한 열망이 강했는지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희담석
mahamall.co.kr
마하몰이 추천하는 효도선물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소중한 분들께 전하는 감사의 선물- 희담석 제품이 좋습니다.



희담석 방석
● 규격상자(20x30) : 198,000원
● 색상: 연꽃, 황금



희담석 찜질팩
● 규격상자(20x30) : 38,000원



희담석 매트
● 규격상자(40x60) : 4,000,000원
● 1인용 규격상자(20x30) : 2,500,000원
● 2인용 규격상자(40x60) : 13,000,000원
● 1인용 매트(20x30) : 15,000,000원

“생명의 돌, 생체활성 메카니즘 -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동남아의 오지에서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되어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다. 방출되는 적외선과 열과 양은 허약의 체온보다 뛰어나다. 이런 희담석을 성분 분석과 원재료인 자중금속을 통해 인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무익한 에너지가 가진 것만을 원산하여 실용화한 것이 (주)자원넷의 희담석 제품입니다.

희담석 방석과 희담석 찜질팩은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켜 주는 제품입니다. 희담석은 세포의 활성화, 노폐물 배출, 노화 억제, 항균 방어력 증강, 통증 완화, 기억력과 판단력 향상, 식품의 신선도, 식물 성장 촉진 등에 효능이 있습니다.

제조원 (주)자원넷 JAWONNET CO., LTD.

마하몰 제품문의 (02)732-1520